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함평군,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춰진 지역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해 3개 지구에 87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보급률을 85.1%에서 88.1%까지 끌어 올렸다. 내년에는 4개 지구에 50억원으로

올해 3개 지구에 87억원 투입 보급률 88.1%까지 끌어올려

농어촌생활용수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을 추진한다. 신광면 삼다리 좌아마을 등 마을 상수도 6곳과 함평을 만흥리 만년마

을 등 소규모 급수시설 16곳 등 총 22곳은 '함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폐지될 예정이다.

폐지된 급수시설 등은 회합에 따라 농업용으로 전환해 영농편의 증대와 가뭄 대처에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수도 보급 확대로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어려운 이웃 찾아 사랑을 전해요”

보성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보성군은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발굴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중지가구, 실직,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가구와 단전, 단수 가구 등)이다.

군은 복지담당공무원을 비롯해 읍·면·동장·읍·면장협의회, 복지이장, 우체국 집배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이웃 주민신고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현수막 게시, 리플릿 제작, 털장갑 등을 배부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차상위 등 공적지원과 함께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 주변에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주민복지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2017년 ‘상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695 가구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700여건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성군, 친환경 벌채로 ‘건강한 산’ 만든다

장성호 주변 임도 중심 밀원단지(백합나무) 새롭게 조성



장성군이 10억여원을 투입해 131ha 규모의 조림 사업을 벌인다.

군 관계자는 2018년 경제수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벌채를 통해 131ha의 산림을 정비하고 임도가 새로 개통된 지역에는 경제림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벌채 작업은 임지가 5ha 이상일 경우 무분별한 개벌을 지양해 산림의 경관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간종목과 계곡 부위 수림대는 존치시키는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림사업도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20개 수종 중에서 산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식재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방치됐던 장성담 주변 숲에 장성을 용곡리에서 북하면 용두리에 이르는 임도가 내년에 개통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경제림을 새롭게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다. 장성군은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맞춰 이 일대에 밀원산림에 속하는 백합나무 5만5천본을 식재할 예정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숲의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숲을 찾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남”이라며 “장성의 소중한 자원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토지의 60%가 임야로 이뤄진 산림지역으로,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왔다. 특히 2016년 12월 축령산이 ‘편백힐링특구’로 지정돼 편백과 힐링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신안군, 2018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비 30억 확보

양식새우 성장 전망

신안군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2018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분야 공모에 응모하여 2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건립, 15억원’, ‘축제식2묘자 복합양식시설구축, 15억원’ 등 총 30억원으로, 우리군 새우양식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추진한다.

신안군은 금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평소 축제식 새우양식이 안고 있는 양식환경, 초기폐사, 양식기간, 출하시기 등 여러가지 불리한 요소들이 해소됨으로서, 현재 500억원대의 신안군 양식새우 생산량이 600억원대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건립은 수년전부터 염원에 왔던 새우양식어가들의 숙원사항으로 금번 사업을 계기로 양식 환경개선 및

질병예방에 임식초기 새우 생존율을 60%(평균 생존율 15~35%)까지 높이고 동시, 미생물 구입비용(매년 20억원) 절감으로 어가별 경영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만 해도 국비 등 20여억원을 확보하여 무감염 새우종묘배양장 건립, 친환경 바이오플라, 축제식 2묘자, 축제식 트랙형 해상, 개체굴 등 새우양식 기반강화와 함께 축제식양식의 다변화를

위한 신기술(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2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군 새우양식산업 성장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어가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군 새우양식은 263어가(801ha)에서 연간 3,000여톤(500억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새우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양식새우의 주 생산지이다.

신안=박응식 기자

고흥군, 청년내일로 사업 참여자 및 용접 교육생 모집

고흥군은 11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청년내일로 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용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로사업’은 전남도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사업내

용은 각 지자체가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고흥군은 내일로사업으로 직업상담사로 근무할 청년과 농업기술센터 산업공총 창업보육

지원센터에 근무할 청년을 각각 모집한다.

이와 더불어 군은 ‘용접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용접 능력을 습득하여 취업할 회

합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사업으로 관내 업체에 취업연계 제 공할 예정이다.

내일로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청년은 고흥군 홈페이지에 있는 채용계획을 참고하고 접수하면 되고, 용접 전문인력 교육사업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가능하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구례군,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드림스타트 부모 대상 두 달간 총 10회 운영

구례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총 10회에 걸쳐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가사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여 정리되지 않는 물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주부들의 풀뚨기회를 해결해주는 직업이 바로 정리수납 전문가다. 최근 TV나 신문잡지 등 언론매체에서 핫이슈로 주목받아 정리 열풍의 중심에 있는 유망직종이기도 하다.

드림스타트는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주부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

던 가사노동이 정식 전문가 과정으로 인정받아 취업은 물론 재능기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에 기획하였다.

원래 집 정리를 잘 못 했던 참가자 김 씨는 “아이들이 엄마! 우리 집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라고 말할 때 마다 정말 기분이 좋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소감을 밝혔다.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앞으로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적정임금 (연대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노사 책임경영 구현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